



담당 부서: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자활지원과장

김경원

02-2133-7489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10쪽

자활지원팀장

기재일

02-2133-1234

쪽방촌에 깃든 따뜻함.. 서울시, 돈의동쪽방촌 온기창고 2호점 개소

- 27일(월) 돈의동 쪽방상당소에 ‘온기창고’ 2호점 개소...28일(화) 임시 운영 시작
- 쪽방 주민이 직접 참여해 쓰지 않는 물품 기부하는 ‘온기나눔’ 캠페인 진행
- 온기창고 1호점 운영 100일의 기록, 쪽방주민에게 행복을 주는 보물 창고
- 온기창고 운영 노숙인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추진, 향후 쪽방주민 자활·재활사업으로의 가능성 모색

“옛날에는 배급 받으려고 줄을 200m 섰어요. 그런데 지금은 온기창고가 있으니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몸이 좀 성하면 심부름이라도 하고 싶어요” # 쪽방주민 A

“편리해요. 아무 때나 가서 가져다 먹을 수 있으니깐 좋죠.” # 쪽방주민 B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가져가실 수 있어서, 많이 즐거워하세요. 또 한도 내에서 가져 가시는 거니까 경제관념도 생기는 것 같고요” # 쪽방상당소 관계자

출처 : KBS 동네 한 바퀴('23.11.18.)에서

서울시는 돈의동 쪽방촌에 ‘온기창고(2호점)’를 개소한다고 27일 밝혔다.

- ‘온기창고’는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으로 매장에 후원받은 생필품을 진열해 놓고, 쪽방주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개인이 배정받은 적립금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이러한 온기창고는 쪽방주민들에게 후원물품을 배분할 때 생기던 선착순·줄서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된 수요맞춤형 물품배분 시스템이다.
- ‘온기창고’ 1호점은 동자동 쪽방촌에 있으며 지난 8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 27일(월) 오후 3시에 열린 돈의동 쪽방촌 온기창고(2호점) 개소식에는 김경원 자활지원과장, 최영민 돈의동 쪽방상담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 돈의동 쪽방상담소(종로구 돈화문로9가길 20-2) 1층에 위치한 온기창고 2호점은 28일(화)부터 임시 운영에 들어가며 냉장·냉동고 등의 기자재를 갖추고 편의점과 같은 포스기(POS, 상점의 전자식 금전등록기)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또한 상시개관을 목표로 당분간은 주 2회(화, 목) 운영되며, 전담인력 1명(매니저)과 참여주민 2명(공공일자리)이 함께 꾸려나갈 예정이다.

- 또한 시는 온기창고 2호점 개점을 준비하며 쪽방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새 물건을 기부하는 ‘온기나눔 캠페인’을 함께 추진하여 왔다.
 - 시는 쪽방 주민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을 기부하면서 나눔의 의미를 깨닫고 ‘온기창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본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캠페인을 통해 지갑과 같은 액세서리, 참치캔 등의 쓸만한 물품이 모였으며, 특히 한 익명의 기부자는 직접 담근 김치 100kg, 농사지은 쌀 100kg을 기부해 오기도 했다.
 - 기부받은 물품은 온기창고를 통해 이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다시 나누어줄 계획이다.

- 돈의동 쪽방촌 온기창고 2호점은 현재의 후원물품 배분시스템 개선에 머물지 않고 쪽방주민의 자활·재활사업으로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쪽방주민의 수요가 낮은 양질의 기부물품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재판매를 하고, 그 수익금을 온기창고에 재투자하거나 알콜 의존치료 등 주민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온기창고 운영 지원을 약속한 ‘세븐일레븐’(대표 : 최경호) 또한, 돈의동 쪽방촌 온기창고 2호점에도 물품후원을 이어갈 예정이며, 일자리 창출 등 쪽방주민의 자활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하였다.

□ 한편, 온기창고 1호점이 개점 100일을 넘겼다.

□ 오세훈 시장은 지난 7월20일 용산구 동자동 온기창고 1호점 개소식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날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말하지만 적어도 동행식당이나 온기창고는 다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시스템 체계를 바꾼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 이렇게들 좋아하는데 다시 원상 복귀시킬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월 20일 용산구 동자동 온기창고에서 쪽방촌 주민에게 전달한 여름나기 물품을 고르고 있다.

□ 이런 오 시장의 말처럼 ‘온기창고’는 뜨거운 호응 속에 쪽방 주민들의 행복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 8.2. 운영 시작부터 11.10.까지 온기창고 1호점의 100일 간의 기록을 살펴보면, 등록회원 830여명, 이용인원 총 10,067명으로 매일 200명 이상이 드나들었다.
- POS 분석 결과, 총 배분건수는 75,320건으로 총 254백만점(포인트)를 나누었다. 이는 온기창고 개소 이전인 상반기보다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온기창고 1호점은 운영초기 주민들의 이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 ‘온기창고’를 소매점으로 인식한 일부 주민들은 물건값이 비싸다거나, 원하는 물건이 없다고 불평했고, 더러는 여럿이 나누기 위한 구매수량 제한같은 규칙을 이해하지 못했다.
- 또한 누구보다도 빨리 좋은 물품을 획득하겠다는 마음 때문에 주민들은 온기창고가 문을 열기 전부터 길게 줄을 서기도 했다.

□ 100일이 지난 지금은, 장시간 대기로 인한 주민 불편이 해소되는 등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온기창고가 없던 시절 1~2시간은 기본이던 대기시간이 온기창고 운영 이후 30분 이내로 단축되었다.
- 주민들이 적립금 한도 내에서 물품을 선택한다는 온기창고의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면서, 신중하게 물건을 고르고 필요 이상으로 물건을 가져가지도 않게 되었다. 그 결과 초기 문을 열자마자 매장으로 달려오는 ‘오픈런’이 줄어들고 인기품목의 품절 빈도도 낮아지게 되었다.
- 거동이 불편하거나 몸이 아픈 분을 제외하고는 대리 수령이 없다. 예전 줄서기 시절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주거나 힘으로 눌러 대신 줄서기를 시키

는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장보기’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본인이 편한 시간에 직접 온다.

- 선착순으로 비교적 큰 규모의 쌀, 김치를 받아다가 되팔아 현금화하는 일도 비밀비재했으나 온기창고에서는 물품을 소분(小分)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고르게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작은 것들은 이웃 간에 나누고 베푸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한다.

□ 시는 앞으로도 온기창고를 후원물품 배분이라는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쪽방 주민들의 재활·사업으로도 영역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약자와의 동행사업인 온기창고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아 참 기쁘고 감사하다. 처음엔 어려움도 있었지만 점점 자리잡아가는 온기창고를 보니, 주민들을 위한 진심이 통한 것 같다.”라며 “한파 취약계층인 쪽방 주민들이, 온기창고를 통해 보다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전했다.

□ 행사 개요

- 일 시 : '23.11.27.(월) 15:00~15:40(40')
- 장 소 : 돈의동쪽방상담소 4층 프로그램실1 및 1층 '온기창고'
- 참석대상 : 자활지원과장, 세븐일레븐, 돈의동 103번지 통장님, 쪽방상담소장
 - 서울시 : 김경원 자활지원과장, 기재일 자활지원팀장, 담당 주무관
 - 쪽방촌 : 최영민 돈의동쪽방상담소장, 이정희 통장님, 타쪽방상담소장
- 주요내용 : '온기나눔' 릴레이 동참(과장님→상담소장님→통장님)
 - 개소식 : 인사말씀, 축하말씀 등
 - 제막식 : 1층 온기창고 현관 입구
 - '온기나눔' 캠페인 동참 : 자활지원과, 타쪽방촌, 세븐일레븐 물품 기부

□ 진행순서

| 시 간 | | 내 용 | 비 고 |
|-------------|-----|---|--------------------------------|
| 15:00~15:02 | 2' | 개 회 및 내빈 소개 | ※ 사회 : 최선관 행정실장 |
| 15:02~15:15 | 13' | 개 소 식 - 인사말씀 및 기념촬영 등 | 4층 프로그램실 1 |
| 15:15~15:25 | 10' | 제 막 식 및 기념 촬영 | 1층 온기창고 현관 |
| 15:25~15:50 | 25' | '온기나눔' 캠페인 - 나는 안 쓰는 쓸만한 물품 기부하기 (인증 릴레이) | 자활지원과장, 쪽방상담소장, 주민대표 통장, |
| 15:50~16:00 | 10' | '온기창고' 2호점 둘러보기 | 다같이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물품을 기부하는 경험을 통해 ‘나눔’의 주체로 일깨우고, ‘온기창고’에 대한 이해 증진
- 사업명 : ‘온기나눔’ 캠페인
- 활동기간 : 2023.11.13.(월)~2023.11.30.(목)
- 참여대상 : 쪽방촌 거주자 및 종로구 지역주민, 누구나
- 기부장소 : 상담소 1층 안내데스크 온기나눔박스

□ 사업내용

- 쪽방에 쟁인 식료품, 생활용품 등 사용하지 않는 물품 기증
- 기부된 물품은 재순환을 통해 필요한 쪽방주민에게 제공
- 온기창고에 기부된 물품의 재판매는 1인 1~3개 한정으로 제공
- 기부물품에 맞는 포인트를 제공하여 동행스토어 이용가능



□ 기대효과

-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기부하여 기부문화 정착 유도
- 물품 기증으로 포인트를 제공하여 추가 이용 가능
- 나눔으로 인해 마을주민들과의 문화공동체 형성

□ 사업위치

- 종로구 돈화문로9가길 20-2, 돈의동쪽방상담소 1층(약 135㎡)

□ 시설 현황

- 진열대 및 계산대, 냉장·냉동고, POS(전자식 금전등록기), 창고(지하1층)

□ 운영 계획

- 운영 인력 : 전담 매니저, 공공일자리 참여자 2명
- 운영시간 : 주 2회(화, 목, 9~17시)
 - ※ 주민 수요와 참여에 따라 운영 횟수 확대 예정이며, '24년 정식 개소 시 확대 운영
- 운영방식 : 상담소 등록 쪽방주민에게 회원(적립금)카드 발행하여, 적립금 월 4만점(포인트)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 구매

□ 사업 현장

| | |
|---|--|
|  |  |
| <p>온기창고 입구(쪽방상담소 1층)</p> | <p>내부 진열대</p> |
|  |  |
| <p>POS</p> | <p>'온기나눔' 캠페인 기부물품</p> |

배분현황 : 총 75,320건 총 254백만점(포인트)

○ 식품이 가장 많고, 간식, 영양제, 생활용품 순

| 연번 | 품 목 | 배분수 | 배분금액 | 순위(금액순) |
|----|---------|--------|-------------|---------|
| 1 | 계 | 75,320 | 253,724,300 | |
| 2 | 식품 | 25,062 | 100,396,300 | 1위 |
| 3 | 생활용품 | 4,520 | 11,144,000 | |
| 4 | 냉방용품 | 698 | 5,803,000 | |
| 5 | 신선식품 | 562 | 2,646,500 | |
| 6 | 미용, 화장품 | 263 | 656,000 | |
| 7 | 방한용품 | 788 | 6,297,500 | |
| 8 | 부식, 간식 | 25,266 | 35,741,500 | 2위 |
| 9 | 영양제 등 | 1,157 | 11,570,000 | 3위 |
| 10 | 의류 | 1,750 | 3,656,500 | |
| 11 | 주방용품 | 254 | 813,000 | |
| 12 | 생수 | 15,000 | 75,000,000 | * 순위 제외 |

주민 수요조사 결과(온기창고 내 요청 게시판 운영 중)

| 번호 | 구분 | 품명 | 비고 |
|----------------|--------|--|----|
| 주민 요청 품목 | 식품 | 스팸, 커피 | |
| | 식품-양념류 | 고추장, 된장, 간장, 참기름, 식용유 | |
| | 생활용품 | 세안비누, 세탁비누, 세제, 휴지, 면도기, 부탄가스, 살충제(바퀴벌레) | |
| | 음료 | 두유, 수정과 | |
| 판매 선호도 | 식품 | 즉석밥, 참치캔, 통조림햄, 라면, 생수, 김, 간장, 설탕 | |
| | 생활용품 | 비누, 주방세제 | |
| | 전자기기 | 선풍기 | |

Q1. 대기 시간 단축되었지만, 아직도 줄을 섭니까?

A. 대기시작은 30분 이내로 크게 줄었고, 그 마저도 개점 초기 선호 물품을 선점하기 위한 오픈런이었습니다. 기존 경험에 비추어볼 때, 누구보다 빨리가야 선호물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현재는 운영일·시간에 고르게 진열하고, 수량제한(예, 1인당 라면 2개) 등 운영 상 조치들을 통해 경쟁하기 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나눠쓰는 문화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물품 후원처 발굴도 역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Q2. 기존의 푸드마켓과 차별화된 점 또는 강점은?

A. ‘온기창고’는 쪽방주민 수요맞춤형 푸드마켓이며, 기존 푸드마켓(월 1회 방문, 5개 구매)과 달리 수시로 방문하여, 적립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또한, 쪽방상담소가 운영하기 때문에, 한파사고 등 주민들의 생활사건과 수요를 빨리 파악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주체로 세워나가, 궁극적으로는 노숙인·쪽방주민 재활 및 자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미 기존 공공일자리보다 높은 노동 강도로 ‘힘들다’는 표현도 하지만, POS기 사용, 물품진열 등에 대해 노하우를 습득하고 자부심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Q3. ‘소매점’으로 인식하는 것은 큰 문제 아닌가? 개선방법은?

A. 적립금=지원금, 온기창고=소매점으로 인식하여 간혹 ‘물건값이 비싸다.’, ‘살 게 없다’ 등의 불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웃들의 후원으로 운영된다는 점과 주민 역시 나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돈의동 2호점 개소 시 ‘온기나눔’캠페인 진행 중) 다만, 소매점으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 배분, 가격비교 등 구매활동을 하면서 경제관념이 생기고 사회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가격을 인지하고 필요한 것을 구매함으로써 현금화(일명 쌀깡) 등 감소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